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6주일
제31권 12호(가해) 2011.2.13

[묵상]



십계명을
받는
모세

<사갈,
1960>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특별합니다.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과 다릅니다.
율법 학자나 바리사이가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으며
하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고.

군중들은 짜릿해 했는지 모릅니다.
이젠 율법 따위는 필요 없어.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아도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군중들이 착각을 할까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형제에게 성을 내기만 해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기만 해도
무엇을 두고 든 맹세를 하기만 해도
죄를 짓는 것이라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형식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켜야 완성된다고
그들의 의로움을 능가한다는 것은
그들이 형식으로 지켰던 율법을
그 정신까지 실행에 옮겨
율법과 예언서들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 樞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민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 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 720-8240

수 요 일	저 녁 미 사	오후	7:30
목 요 일	저 녁 미 사	오후	7:30
금 요 일	아침 미 사	오전	8:30
토 요 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 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표

수 요 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오후 2:00
	예비자 교리반	오후 8:00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 요 일	성 시 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전신자 성경통독	오전 10:00, 오후 8:00
금 요 일	병자영성체(1째주) M.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10:00 오후 7:00 오후 8:00
토 요 일	유아세례(씩수달 4째토요일) 성령기도회 배튼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오후 6:00
주 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 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 민첸시오회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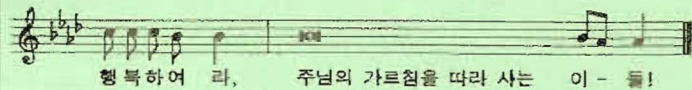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 무 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특전미사	(생) 성은혜 실비아 & 성낙호 요셉 가정
주 일	(연) 민요한 & 마리아, 윤재림 마리아, 박송희, 고준희 제임스, 윤희중, 윤스콜라스티카, 김시형 시릴로, 최복덕 마리아, 엄은섭 도로테오, 이현호 요한, 김종환 야고보, 김이기 요셉 & 김순희 헬레나, 변석환
낮 미사	(생) 김복순 벨라벤타, 엄유진 토마스, 지승준 토마스, 김유선 바오로 & 김옥자 올리벤타, 김성일 바오로 가정, 정광미 프란체스카 가정, 주용범 아브라함, 윤희동 안토니오 & 윤남열 세라피나, 유석영 레오 & 신혜정 토사 가정, 변혜경 올리아나, 구 역호수아, 강필진 알렉산더 & 강필성 바오로, 이진행 힐라리오, 이정용 야고보, 최은경 카타리나, 정정현 베네딕타 가정, 김종길 바오로 & 김재희 모니카 가정, 박상대 마르꼬 사제, 이장환 마르띠노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집회서(Sirach) 15,15-20

화답송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행복하여라, 온전한 길을 걷은 이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행복하여라, 그분의 법을 따르는 이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찾는 이들!○
○당신은 규정을 내리시어, 어김없이 지키라 하셨나이다.
당신 법령을 지키도록 저의 길을 굳건하게 하소서.○
○당신 종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제가 살아 당신 말씀 지키오리다. 제 눈을 열어 주소서. 당신의 놀라운 가르침 바라보리이다.○
○주님, 당신 법령의 길을 가르치소서. 저는 끝까지 그 길을 따르오리다. 저를 깨우치소서. 당신 가르침을 따르고, 마음을 다하여 지키오리다.○

제 2독서 코린토 1서(1 Corinthians) 2,6-10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복 음 마태오(Matthew) 5,17-37

영성체송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으니,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네. 주님은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225	244	240
봉헌	주품에 품으소서	259	175
성체	온맘 다해	391	287
파견	213	234	233

3. 살인하지 못한다 - 하느님의 신성한 법-

▶국법과 도덕률

이 어려운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악행에 대한 협력에 관한 일반 원칙들을 되돌아보아야만 한다. 선한 의지를 지닌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비록 국법이 허용하더라도 하느님의 법에 위배되는 행위들에 명시적으로 협력해서는 안된다는 엄중한 양심상의 의무를 지키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도덕적 입장에서 볼 때, 악에 대해 명시적으로 협력하는 행위는 결코 합법적일 수 없다. 어떤 행위를, 그 자체의 성질상 또는 그것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가지게 되는 형태로 보아서, 무고한 인간 생명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참여하는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을 때, 또는 그러한 해를 끼치는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의 비도덕적인 의도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을 때, 악에 대한 협력이 성립된다. 이러한 협력은 타인의 자유에 대한 존중이라는 구실로도, 또 국법이 그것을 허용하거나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실제로 각 개인들에게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행하는 행동들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 어느 누구도 이 책임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이 책임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로마 2,6; 14,12 참조).

불의를 저지르는 데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거부는 도덕적인 의무일 뿐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하다. 그렇지 못할 때,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될 수 없는 행동을 수행하도록 강제 당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됨으로써 인간의 자유 그 자체와, 진리와 선을 향한 그 지향에서 찾을 수 있는 자유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들은 근본적으로 훼손된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법이 인정하고 보호해야 할 그야말로 본질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사나 보건 담당자들, 병원, 진료소, 요양 시설 운영자들에게 생명을 거스르는 이러한 행위들의 상담, 준비, 실행 단계에 대한 참여를 거부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양심적인 거부권에 호소하는 사람들은 법적 처벌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뿐 아니라, 법, 규정, 재정, 직업 차원의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

▶생명의 "증진"

75). 하느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친다. 어떠한 행위들의 선택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포하는 윤리적인 금령(禁令)들은 인간의 자유에 대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 규정들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 예외 없이 효력을 가진다. 이 규정들은 어떠한 행동양식들의 선택은 하느님의 사랑과, 그분의 모상을 본떠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과 근본적으로 양립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한 선택들은 의향이 아무리 좋고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구체 받을 수 없다. (◆계속)

편견과 독선의 그물망에 갇히지 않는 믿음

진실의 가장 큰 적은 거짓이 아니라 편견일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삶은 거짓과 무지의 폭력에 의한 상처보다 편견의 폭력에 더 큰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종교적인 분쟁이 그러하고 정치적인 이념이 그러했으며 지역적인 편견이 그렇습니다. 생활 속에서는 다르다는 것이 틀리다는 것으로 둔갑하고 마음의 나눔 없이 강요만이 자리했습니다. 편견은 독선과 벗하고 절대라는 지위에 은근슬쩍 돛자리를 펴니다. 결국 편견이 꿈꾸는 세상은 너 없는 나뿐인 세상,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와 같은 사람만을 위한 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소설가의 말처럼 나쁜 사람이 '나쁜인 사람' 이라면 가장 나쁜 사람은 바로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일 겁니다. 해서 진실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 역시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자신만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만이 절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히 삶의 진실과 마주할 수 없고 진실의 영원한 반역자인 겸손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착각한 사람들이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최고의 자리에 대한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복음 속에서 예수님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고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율법 학자들 그리고 바리사이들을 혹독하게 비판하셨던

예수님이요 보면 우리 입장에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비판이 사랑 없는 그들만의 편견에 대한 것이고 보면 예수님을 믿는 이들도 우리만의 편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믿음과 편견은 의견상 고집스러움은 같을지 모르지만 삶 속에서는 전혀 다른 그림을 만들어 냅니다. 믿음은 다른 이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모범이 되고 감동을 자아내지만, 편견은 자신을 바꾸는 대신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강요로 반발과 분노를 자아냅니다. 해서 믿음은 봉사와 희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만 편견은 다른 이를 희생시키고 강제해서 세상을 바꾸려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최고의 자리를 탐하기보다 최선을 다하되 절대라는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 길이 그래서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앙은 절대이신 하느님 앞에 무릎 꿇는 행위이지만 인간에 대한 사랑을 그 발밑에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품에 안고 무릎 꿇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권철호 다니엘 신부 /

서울대교구 삼각지성당 주임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이진향 아네스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이상용 엘리아	권오상 바오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전지요 글라라	권순길 체칠리아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2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박윤희 스테파니아	이호미 엘리사벳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이상용 엘리아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2반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제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겐 사랑을, 살천하는 믿음 속에 성장하는 백삼위"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목주기도를 바칩시다.

◆ 본당 설립 30주년기념 연중행사 스케줄 ◆

백삼위 공동체 설립 30주년 기념미사를 지난 주일 오스카 솔리스 지역 주교님을 모시고 은혜로히 봉헌했습니다.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연중 기념행사 스케줄을 알려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 나갑시다.

- 전신자 성경통독 : 1월1일~12월15일
- 목주기도 30만단 바치기 : 1월10일~12월15일
- 본당 역사 자료 수집 : 1월1일~ 9월15일
- 성경퀴즈대회 : 1월~12월
- 체육대회 & 구역별 맛자랑 : 5월중
- 본당의 날(야외14처 봉헌 & 구역별 장기자랑) : 9월18일
- 백삼위 사진전 : 9월18일~9월24일
- 백삼위 서예전 : 9월18일~9월24일
- 30주년 감사미사 : 12월18일

◆ 전신자 모두 예비자를 봉헌합시다.

본당 설립 30주년의 해에 전신자 봉헌 예비자를 모집합니다. 세례식 일정은 추후 알립니다.

- 환영식 : 2011년 2월27일(주일) 낮미사 후, 강당
- 교리시간 : 3월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 장소 : 2층 교리실
- 문의 : 복음화분과장 김충섭 마틴 ☎(213)820-7636

◆ 파나마 선교후원을 위한 2차 헌금 있습니다.

- 일시 : 2월20일 주일미사(토요특전 포함)
- 미사집전 : 김무웅 이나시오 신부(파나마 원주민 선교사목)

◆ 본당설립 30주년 기념 팸플렛 배부

- 일시 : 2월20일(주일)부터

◆ 제1회 백삼위 서예모임 작품전시회

- 전시기간 : 2월20일(주일)~2월 27일(주일)
- 축하 리셉션 : 20일 오후 1시, 강당
- 무료가혼 써주기 : 서예가협회장 일호 선생(한중일 초대작가)께서 백삼위 교우들을 위해 당일 가혼을 무료로 써드립니다. 문의 ☎(310)374-1572 이명렬 라파엘

◆ 간단한 통증 상담 및 Care(조치)

- 일시 : 매주 목요일 성경통독 아침반 전후 30분씩, 회의실
- 대상 : 요셉회, 안나회 중심 교우들
- 문의 : 한의사 권진열 피데스 ☎(310)800-3592

◆ 성모회 김치병 모읍니다.

백삼위 성모회표 김치판매를 앞두고 집에 사용하지않는 빈 김치병을 수집합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재의 수요일에 사용할 성지 가지 회수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3월9일)에는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때 쓰이는 재는 지난해 나눠드린 성지가지를 태워서 사용합니다. 가정에 보관하고 있는 성지가지를 3월6일(주일)까지 성당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성모신심 세미나

- 일시 : 2월16일(수)~18일(금) 오후 7시
- 장소 : LA 성 바실 본당 지하(661 S. Kingsley Dr.)
- 강의와 미사집전 : 황광우 요셉 신부

◆ '사랑의 영수증 모으기'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한남체인 토렌스점에서 실시중인 고객들의 사랑의 영수증 모으기 캠페인이 지난 1년간 \$4,640(총구매액의 1%)을 본당에 도네이션해왔습니다. 영수증 모으기에 협조한 교우들과 마켓측에 감사드립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2월13일(주일) : P.V. 3반(배추우거지국 \$3)
- 2월20일(주일) : 토렌스 동 1반(카레라이스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덕희	김기정	김대우	김병태	김선제	김옥보
	김옥찬	김원호	김종렬	김종선	김주량	김풍길
	김형순	노순애	민기남	민소예	민찬기	박선희
	박씨니	박완철	박진수	배기열	성낙호	신경훈
	신중철	안민수	오일순	윤석구	이귀분	이근모
	이명자	이상석	이상철	이연행	이영숙	이인두
	이재용	임연조	장영우	정규숙	정열모	정지숙
	조윤영	주대중	차병용	최기남	최태훈	황인중
	황학수	영희가보라				

합계 : \$3,845

성전헌금	김기정	김대우	김선제	김옥보	김원호	김주량
	김풍길	김형순	노순애	민기남	민소예	민찬기
	박선희	박씨니	박완철	박진수	배기열	성낙호
	신경훈	신중철	안민수	이귀분	이근모	이명자
	이상석	이상철	이영숙	장영우	정규숙	정열모
	정지숙	주대중	차병용	최기남	최태훈	황인중
	영희가보라					

합계 : \$2,495

미사헌금 : \$3,563

2차헌금 : \$1,148

감사헌금 : 한길선례

본당설립30주년 봉헌금 : \$18,160

공지사항

◆ 주일학교 사순 피정

- 일시 : 4월1일(금)~3일(주일) 오후 4시 성당 출발
- 장소 : 테메클라 꽃동네 피정센터
- 대상 : 7학년~12학년
- 참가비 \$50(\$70, 3월14일 이후)
- 신청마감 3월21일
- 접수 : 주일학교 교사실, 사무실
- 문의 : 강혜원 아네스 교장 ☎(310)780-0369

◆ 한국학교 2학기 등록 받습니다.

- 신청 : 한국학교 교사실
- 문의 : 이헬레나 교장 ☎422-0066

◆ 주일학교 휴강 안내

- 주일학교 : 오늘 주일(13일) 휴강. 주일학교 교사 연수중
- 한국학교 : 20일(주일) 프레지던츠 데이 연휴 휴강
- 학생미사는 모두 있습니다.

◆ 전신자 친구약 통독 7주간 암송 성구 ◆

● 2월14일(월) 예가

우리의 길을 성찰하고 반성하여 주님께 돌아가세.(3,40)

● 2월15일(화) 예레미아서

‘저는 아이입니다.’하자마라. 너는 내가 보내면 누구에게나 가야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면 무엇이냐 말해야 한다.(1,7)

● 2월16일(수)

예루살렘아, 네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네 마음에서 악을 깨끗이 씻어 내어라. 언제까지나 네 안에 악한 생각을 품어 두려느냐?(4,14)

● 2월17일(목)

자랑하려는 이는 이런 일을, 곧 나를 이해하고 알아 모시는 일을 자랑하여라. 나는 과연 자애를 실천하는 주님으로 이런 일들을 기꺼워한다.(9,23)

● 2월18일(금)

그들이 내 백성의 길을 충실하게 배워 나가고, 전에는 그들이 내 백성에게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가르쳤지만 이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살아 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면, 내 백성 가운데에 자리 잡게 될것이다.(12,16)

● 2월19일(토)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 한가운데에 계십니다. 저희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니 저희를 버리지 마소서!(14,9)

● 2월20일(일)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 교활하여 치유될 가망이 없으니 누가 그 마음을 알리오? 내가 바로 마음을 살피고 속을 떠보는 주님이 다.(17,9-10)

이번 주 단체 모임

제단채 모임의 날	오전 9시,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	--

소공동체 2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김씨니 클라라 박희자 마리아 이경수 헬레나	(310)612-8840 (310)325-6982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율리아나 920-5153	강순복 요세피나 850-6388 2/12(토) 오후 7시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박선희 소피아 714-296-6799 2/12(토) 오후 7시 강당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2/18(금) 오후 8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김대우 비오 378-8763 2/12(토) 오후 6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상규 다니엘 424-263-7819 2/22(화) 오후 7시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신정희 클라라 424-903-5051 2/7(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이명자 마가렛 433-9075	조정석 수산나 433-9075 2/18(금) 오후 7시30분 강당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박정람 마르시아 972-9193 2/9(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한희경 크리스티나 750-4051	이상철 크리스토퍼 818-6903 2/12(토) 오후 6시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2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오혜숙 루시아 327-8035 2/11(금) 오후 7시
	3	대전회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전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새라피나 365-9750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이미령 엘리사벳 991-5895 2/12(토) 오후 7시30분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송종두 요한 544-1267 2/11(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안민수 베드로 544-8908 2/14(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김도원 다니엘 892-1213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이영숙 수산나 544-5078 2/8(화) 오전 10시30분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은 병이 나옵니다.”(1베드 2,24)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해마다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인 2월 11일에 세계 병자의 날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고 특히 우리 공동체들과 시민 사회가 아픈 우리 형제자매들을 각별히 생각해 보는 은혜로운 기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형제이니만큼 그 누구보다도 병든 이들, 고통 받는 이들, 보살핌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 관심을 집중시켜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이 사람들에게서 잊혔다거나 버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인간다움의 참된 척도는 고통과 고통 받는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중요하게 판가름됩니다. 개인이든 사회든 마찬가지입니다. 고통 받는 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함께 고통을 겪음’(com-passio)으로써 그들의 고통을 나누고 안으로 견디도록 돕지 못하는 사회는 무정하고 비인간적인 사회입니다. 이 날을 맞이하여 모든 교구는 고통 받는 이들을 더 효과적으로 돌보도록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는 독일 알퇴팅의 성모 마리아 순례지에서 성대하게 열릴 2013년 세계 병자의 날 행사 준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토리노를 사목 방문했을 때에 거룩한 수의 앞에서, 곧 그 고통 어린 얼굴 앞에서 잠시 머물러 묵상하고 기도하던 그 순간을 여전히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모든 시대와 장소의 인간 고난을,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죄까지 몸소 짊어지신 그분을 묵상해 보라고 합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시신을 감쌌던 이 수의 앞을 지나갔습니까! 이는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전해 준 바로 그대로입니다. 이 수의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은 병이 나옵니다.”(1베드 2,24) 하신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수난하시고 돌아가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그분의 상처는 우리의 속량과 용서, 아버지와 이혼 화해의 표징이 됩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제자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 수난과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반대하였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고통은 언제나 받아들이고 견디기 힘든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그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실의에 잠겨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분이 그 길을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을 때 비로소 그들은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루카 24,13-31 참조). 토마스 사도도 구원에 이르는 수난의 길을 믿기 힘들어 하였습니다.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요한 20,25). 그러나 당신 상처를 보여 주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대답은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요한 20,28)이라고 외치는 감동적인 신앙 고백으로 바뀝니다. 이 상처는 예수님께서 실패하셨다는 명백한 표시였기에 처음엔 극복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되었지만, 부활하신 분과 만나면서 사랑이 승리하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 특히 무죄한 이들의 상처와 고통을 몸소 짊어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오직 그러한 하느님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눈길이 하느님 사랑의 최고 표현인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을 향하게니다. 이 성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에 꿰뚫리신 그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옵니다.(요한 19,34 참조). “거기서 교회의 성사들이 흘러나오고 모든 이가 구세주의 열린 성심께 달려가 끊임없이 구원의 샘물을 길어 올립니다.”(로마 미사 경본:예수 성심 대축일 감사송). 사랑하는 병자 여러분, 특히 여러분은 사랑에 넘치는 이 성심께 달려가 믿음과 기쁨으로 그 샘에서 물을 길어 올리며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저를 씻어 주소서. 그리스도의 수난으로 제게 힘을 주소서. 오 선하신 예수님, 저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당신의 상처 안에 저를 숨겨 주소서.”(이냐시오 데 로울라 성인의 기도).

이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저의 사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여러분이 날마다 체험하는 고통과 희망에 저 자신도 함께 참여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간청하는 ‘병자의 나움’이시고 고통 받는 이의 위로자’이신 동정 성모님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언제나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2011. 2.11., 바티칸에서 교황 베네딕토 16세>